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 품병마을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조사 보고서

2007-2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REC(Research Expert Course) 캄보디아팀

목차

1. 서론 (Introduction)
2. 이론적 배경 및 사례 연구
3. 설립을 위한 여건 조사
4. 품병마을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방안 제언
5. 결론

I. 서론 (Introduction)

1. 조사 배경 및 목적

“킬링필드의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진 캄보디아는 오래 된 식민지와 내전으로 인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신음하고 있는 곳이다. 현 캄보디아 정부는 20억 불 규모의 UN대대적인 지원 하에 설립되는 등 그 동안 World Bank, ADB 등 국제 금융기구와 많은 수의 비 정부 기구(NGO)의 원조와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복구사업 지원의 노력과 정국안정에 힘입어 캄보디아는 현재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이 캄보디아 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만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절대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가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국가와 기구들의 원조와 지원이 캄보디아의 경제적 도약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당장의 필요를 해결 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인간의 깊은 부분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채 물리적인 부분만을 채워줌으로써 진정한 개발과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빵을 갖다 주는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들에게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 주기로 하는 지역사회개발의 방법, 한 지역과 지역 사람들이 자체충족적인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진정한 변화(transformation)를 위하여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단체 GBS(Global Bridge of Sharing)¹의 대표 강순관 목사 가정은 캄보디아에 장기적으로 들어가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센터와 같은 맥락인 트랜스포메이션센터를 세우기를 계획하였다. 그 후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²에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설립에 관한 리서치를 의뢰하여 본 조사팀이 구성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의 사례들을 찾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한다.

둘째, 센터 설립을 위해 필요한 마을주민의 지역사회개발 관련 인식과 마을의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인식 및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센터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한다.

¹ GBS(Global Bridge of Sharing)

² CIAS

2. 조사 방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리서치전문가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본 조사 팀은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의 품병 마을에 세워 질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의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 진행 시작 되었다.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지역사회개발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세워질 마을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사례조사와 마을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조사 중 사례조사는 사전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를 얻었으며 마을조사는 마을에 직접 거주하여 마을의 대표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하여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고 두 가지 설문지(지역사회개발, 종교성)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마을의 총 가구수 66가구 중 14가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조사의 유용성 및 한계

본 조사는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연구와 캄보디아에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하기 위한 현장조사로 이루어져있다.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마을의 실태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설립 이후 겪을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또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인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본 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들과 지역사회개발 담당자와 직접 만나 센터 설립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현장성 있는 정보를 통해 제언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들은 대학 학부 생이지만 국제지역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동안 연구소 아래에서 수 차례의 리서치의 경험과 더불어 특별히 본 리서치를 위하여 6개월간 심도 있는 리서치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기간의 한계로 설문지에 있어서 정량적 데이터의 부족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사례 연구

- 총체적 선교로서의 지역사회개발과 캄보디아 지역사회개발 사례 연구

현장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총체적 선교와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역사회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1. 총체적 선교

1) 배경

18세기 말 윌리엄 캐리의 해안선선교를 시작으로 내지선교 시대를 거쳐 성경 번역 선교회를 출발로 하는 종족선교시대와 10/40의 미전도 종족 선교전략을 거쳐오면서 그 동안 개신교의 선교는 시대에 요구에 따른 다양한 과정과 전략을 통해 진행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존 선교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 전문인 선교가 부각 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포괄성을 바탕으로 선교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인간의 필요를 다루는 총체적 선교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³

총체적 선교는 현재 남은 선교 대상지가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라마불교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기존 선교의 방식에 한계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나온 선교 전략으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선교전략을 보완하여 영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들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2) 정의

다시 말해 총체적인 선교는 개인들의 전인적 구원을 통하여 창조 전체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인적으로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변화시켜 영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전 관계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회복되어 만유의 회복이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민요섭)⁴

3) 선교적 의의

현재 지구 상 최 빈민 국가의 80%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한다. 현재 이들에게 기쁜 소식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는 당장 이들의 눈 앞에 있는 빈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 선교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기쁜 소식과 궁극적으로 주어야 할 기쁜 소식 모두 채워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총체적 선교는 타락 후 망가졌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총체적 선교는복음을 단편

³ 마민호, 전략적 선교로서의 총체적 선교의 의의와 지역연구, 『제3기 총체적 선교 전문가 과정』, 2007

⁴ 마민호, 전략적 선교로서의 총체적 선교의 의의와 지역연구, 『제3기 총체적 선교 전문가 과정』, 2007

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떠나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즉, 선교 대사명(마태복음 28:18-20)만을 강조하여 영적인 부분의 회복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문화명령(창세기1:28)만을 강조하여 영적인 부분은 간과한 채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인 부분의 회복만을 보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결국 한가지 명령이며 서로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보게 해 준다.

하지만 총체적 선교는 자칫 영혼구원과 교회개척을 간과한 채 그들이 원하는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하는 또 하나의 원조나 구제가 될 위험성 역시 있다.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전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개척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the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⁵의 로잔 언약 제 5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하지도 말고 둘로 나누지도 말라”고 요구하면서 총체적 선교는 중요한 이슈로 다시 부각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존 선교 방식을 통해 현재 남은 선교 대상지로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세계 선교에 있어서 총체적 선교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총체적 지역사회개발

앞에서 제시한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한다는 가정 아래 현장의 다양한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그 접근법 중의 하나인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은 총체적 선교의 기본적 가정아래 특별히 범위를 지역사회로 한정 짓고 그 안에서의 총체적 회복과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의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창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회복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일반적 지역사회개발과 총체적 지역사회개발

1948년 영국행 정관회의에서는“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 지역사회의 생활 행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다. 이러한 주도성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을 경우, 이를 자극하고 고무하기 위한 방법을 써서 그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지역사회개발을 정의하였다⁶.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개발은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 즉, 삶 전체의 물리적,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모두 다루는 개발이며 이 개발의 주체는 주민으로 외부자원과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국가 수립과정의 일부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추진 되어온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외부주도의 상명하복식의 개발(up to down)의 방법과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르며 아래로부터의 개발(bottom up)방법으로 현지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총체적 지역사회 개발과 그리 많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구호 또는 개발사업을 육신에 필요를 채워주는 ‘빵’이라 칭한다면,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필요(신앙적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빵과 복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추구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영적인 필요를 간과한 지역사회개발과는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3) 총체적 지역사회개발로서의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원리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의 선교 방법 중 하나의 실례인 CHE는 Community Health Education and Evangelism의 약자로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질병 예방, 개발, 전도/양육/교회개척을 자연스럽게 통합한 전인 선교 전략⁷이다. 이 전략은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하여, 현지인들이 지역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면서, 주민 개인들이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지역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한다. 즉,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영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통한 전인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CHE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사역이다. 인간의 전인적 필요인 영적 영역을 핵심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영역을 통합시켜 실시한다. 둘째, 지역의 소유권이다. 만약 외부 사람들이 돈과 물자를 가지고 들어가면 사역은 외부인의 것이 되고, 현지인은 방관자가 되어, 외부인이 떠나면 사역은 중단된다. CHE는 처음부터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를 불러 일으키고,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훈련한다. 셋째, 개발 사역이다. 개발이란 현지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CHE는 외부인이 현지인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이 CHE의 전략적 핵심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지인의 신체적 필요가 해결되고, 나아가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해결하며, 마침내 전도와 양육을 통해 교회가 개척된다. 넷째, 배가 사역이다. 사역 시작 단계부터 마을의 현지인을 훈련시켜(CHE 요원), 훈련 받은 CHE 요원이 이웃 가정에 찾아가 훈련 받은 대로 가르치게 된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평균 3-7년 사이에 마을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이웃 마을로 확산되어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배가의 효과가 나타난다.

3. 사례 연구

본 조사 팀은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조사 팀은 전 세계 가난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지역사회개발 중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에 대해 집중하고자 하였고 이미 총체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

⁷ CHE 선교회 홈페이지 www.makorea.org

다. 본 조사 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 하였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 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캄보디아의 이웃(Neighbor of Cambodia)은 현재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사회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 대상의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사례인 NIBC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은 현재는 교육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다른 사업들은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NIBC센터 역시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면 앞으로 세워질 센터에 대하여 좋은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두 가지 사례를 비교 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도 사례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NIBC의 지역사회개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이웃의 사례를 바탕으로 언급될 것임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1) 캄보디아의 이웃(Neighbor of Cambodia) 지역사회개발

민들레 공동체⁸의 해외 사업 중 하나로 시작된 캄보디아의 지역사회개발은 2000년 김기대 선교사가 캄보디아 다게오(Takeo)지역으로 파송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민들레 공동체에서 세운 <캄보디아의 이웃⁹(Neighbor of Cambodia, NOC)>이라는 비 정부 기구(NGO)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교육 사업, 마을개발사업, 운하건설 프로젝트, 교회 사업 등이 있는데, 본 보고서에는 교육사업인 꿈과 미래학교, 마을개발사업인 CHE 프로그램, 수로건설사업 이렇게 세가지 사업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언급하려 한다. 참고로 본 조사 팀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김기대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직접 인터뷰 할 수 없었고, 함께 동역하고 계신 정남식 선교사를 만나 볼 수 있었다.

- (1) **교육사업: 꿈과 미래학교(School of Dream and Future)** 꿈과 미래학교는 2000년에 다게오¹⁰(Takeo Province)지역에 김기대 선교사가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학교는 1년 과정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학교에는 운영 및 교육을 담당하는 현지인 스태프 5명과 45명 가량의 학생이 있다.

① 사업주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현지인으로 구성된 스태프들로 이들이 주도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현지인 학교운영스태프라 함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다. 선교사들은 학교와 스태프의 전체적인

⁸ 민들레 공동체는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기독교 공동체로 1991년에 농촌 교회 지원과 농촌지역사회를 섬기는 뜻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었다. 그 밖에 대안학교인 민들레 학교 운영, 제 3세계 선교와 지역사회개발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⁹ 캄보디아의 이웃은 2002년 3월 캄보디아 외무부, 다음해 1월에는 농촌개발부와 활동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설립되게 되었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사역대상자

20살 전후의 대학시험합격자인 학교 주변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하여, 인터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③ 사역 소개 및 내용

꿈과 미래학교는 기숙 형 학교로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 45분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학급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급의 분반은 영어 실력으로 결정된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농업, 영어, 일반 교양, 태권도 등이 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시간 반씩 영어교육이 이루어 진다. 농업교육은 농업의 특성상 미리 짜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계절의 적절한 시기를 따라 그 때마다 필요한 농업기술을 교육한다. 그 밖에 시애틀 양코르 와트 졸업여행 등 여러 현장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며 자립원칙, 정신개혁, 리더십 함량을 중요한 사역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인식은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들의 태도를 바르게 교육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방황하는 청년들이 이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으며 변화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학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농 축산 기술의 보급과 농촌지도자의 양성이 이루어진다. 졸업 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텝(teacher)으로 섬기거나 뒤에서 언급 할 CHE마을의 스텝으로 섬기는 이들이 많이 배출된다. 학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귀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④ 재정

학교의 재정은 주로 한국교회의 선교 후원을 통해 이루어 진다. 자체적인 재정의 자립은 계획 중에 있는데, 사실 가축 사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건강한 가치를 지닌 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처음부터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으로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채소 농사를 통하여 재정자립을 이루려고 한다.

학교의 수업료는 따로 없으며 한 달에 쌀 20kg으로 수업료를 대신한다. 간혹, 쌀 20kg을 내지 못하여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의 자립이 이루어지면 쌀 20kg을 내는 것도 없앨 계획이다.

⑤ 효과

학교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전하지 않는데, 같이 살면서 성경

이야기 또는 성격적 가치관에 따른 이야기를 한다. 함께 살며 가르치며 성경을 나누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다. 주일 예배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데 학생들의 40~50%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된다.

앞에 언급한 재정자립 방안으로의 채소 농사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능력을 키우고 재정 충당의 이익이 있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은 스스로 키우고 먹는 행복이 무언지 깨닫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에게 필요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지역사회개발 사역: CHE마을

2004년부터 캄보디아 다게오(Takeo)지역 내의 4개 마을을 중심으로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 and Evangelism)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농촌개발의 모델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CHE 프로그램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과 농촌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덧붙여서, 국가의 약 85% 이상이 농업 인구인 캄보디아에서의 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선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다.

① 사역주체

CHE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현지인 스텝들과 마을 주민위원회와 주민 자원봉사자가 CHE 프로그램의 주체이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마을개발의 전반적인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

현지인 스텝을 세울 때에는 크리스천 중심으로 뽑아서 세운다. 스텝은 CHE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개발은 선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는 스텝의 수준만큼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텝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며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개발 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는 주민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선출된 7명의 CHE 위원과 위원회를 도와서 함께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새롭게 세워진 위원회는 기존 마을의 리더십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본 리서치 팀이 조사한 마을은 마을의 이장, 면장과 위원회의 리더십이 연결이 되어있었다. 마을을 꾸려가는 CHE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로 제공되는 급료는 없지만, 마을 개발에 관련된 혜택에 관해 우선순위를 부여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민들레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마을은 4개 마을로 총 28명의 위원들과 91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CHE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들은 주체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자로서, 일차적으로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선교사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선교사가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필요나 자신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사역의 중심을 둔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지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최소의 외부지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② 사역대상자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사역 대상자에 포함된다.

③ 사역 내용

민들레 공동체의 CHE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에는 화장실 개량사업, 관정(tube well), 정수기(water filter), 수로, 가내 수공업, 교육 등이 있다.

정수기 보급운동은 한 시간에 2리터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정수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운동으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재정과 공동체 지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분야는 영어교육, 인성교육, 도덕가치 교육(Moral Value), 농업교육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영어수업은 두 반으로 나누어져 한 반은 30명, 한 반은 25명으로 진행된다.

가내 수공업도 진행 되고 있는데, 현재 조사 팀이 조사한 마을에서는 프놈펜 의류봉제공장과 연계하여 옷에 구슬 다는 일 등의 수공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내수공업은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한 마을에 약 13개의 그룹이 있으며, 연 4천 3백 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각 마을은 마을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마을금고에는 900\$가 있다. 모아진 금액은 마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HE 프로그램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중심 사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조사 팀이 조사한 CHE 프로그램 실시 마을은 아이들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CDP 프로그램 (Children development program)을 실행 중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집트 CHE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선교사는 현지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의 상황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 스스로의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의사를 마을에 데려와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을 한다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일상의 삶에 고질적으로 박혀있던 문제들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

④ 재정

마을 개발 사업의 재정은 외부인이 아닌 현지인들이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들의 재정을 100% 모두 현지인이 책임 진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현지 주민들은 NGO로부터 오는 원조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마다 시기 적절한 재정의 원조도 아주 없어서는 안될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의 후원 또는 원조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의존 감을 길러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⑤ 효과

4개 마을 26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가내수공업에 참여하므로 가구마다 월 최소 20달러 이상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업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노력하면 또 다른 수입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CHE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소득상승이 이루어지고 여러 교육의 혜택으로 교육수준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질병도 줄고 가정불화도 줄게 되었다. CHE 프로그램이 한 마을에 정착되면 마을의 40% 이상이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는데 캄보디아 최초로 시작된 이 CHE 프로그램 마을도 프로그램을 통한 영, 혼, 육의 회복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3) 수로사업

CHE 프로그램 마을의 사업 중 하나로 약 10Km의 농업 및 교통용 수로를 건설 하는 사업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① 사역주체

CHE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선교사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마을 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② 사역대상자

1900hr 논 위에서 농사를 짓는 약 2020가구의 농민들 및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사역 대상자에 포함된다.

③ 사역 내용

수로가 건설되는 지역은 1900 헥 타르의 토지가 수로와 연관된 곳이고, 건설 될 수로는 4개의 마을에 큰 혜택을 입히게 된다. 1월 쯤 모를 심으면 3~4월에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수로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로의 건설은 약 3년 동안의 앞서 언급 한 CHE 프로그램 사역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50여 개의 소 그룹에 말씀이 입혀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재정

수로 건설에 드는 총 비용은 약 \$100,000(1억 원) 정도이다. 민들레공동체는 수로공사 기금을 위한 모금과 한국과 캄보디아의 기도 네트워크를 위하여 '캄보디아 수로공사 모금을 위한 한-캄 국토순례 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소는 캄보디아 다게오 도, 썸무라우군, 뜨리어 면이고, 일시는 2006년 4월 24-27일 이었다. 수로를 필요로 하는 뜨리어면에서 프놈펜을 (150km) 3박 4일에 걸쳐 도보로 왕복하는 것이었다. 이 대회의 참여자는 캄보디아 꿈과 미래 학교 학생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며 국토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자신이 걷는 거리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ex) 100m에 \$1, 1km에 \$10이다.

총 목표 모금 액은 \$100,000 (10만 달러, 1억 원)이다. 수로공사를 통해 만들어질 수로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한 해의 소득은 1억 오천 만원 이상으로 예상 된다.

⑤ 정부와의 관계

처음에 KOICA의 도움이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장이 바뀌게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한-캄 국토순례 대회를 통하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캄보디아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수로 건설의 1km를 도와주었다. 2008년에 남은 나머지 수로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마무리 해주기로 하였다.

⑥ 효과

꿈과 미래 학교 4회 학생들이 수로 건설 모금을 위해서 함께한 3박 4일의 100km 국토순례를 통하여 공동체에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NIBC센터

NIBC는 New International Builder's Community의 약자로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로컬 NGO이다. NIBC의 설립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동남아시아 리서치 팀(SFR)¹¹ 팀이 2001년에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리서치를 하던 중 APSARA¹² 도시개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후 APSARA 도시개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가 씨엠립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이 둘은 MOU 협정을 맺게 되면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 방문한 씨엠립 도지사가 한동대학교와 같은 대학교를 씨엠립에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에 대한 MOU 협정을 맺었다.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 로컬 NGO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년 1월, 캄보디아 씨엠립에 현지 로컬 NGO인 NIBC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 NIBC는 교육 NGO로써 유치원과 대학(Asia International University) 설립을 위해 씨엠립 주정부와 APSARA 도시개발 및 여러 국제 NGO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다. NGO가 설립 된 후, 짧게는 방학 기간 동안,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이 곳에서 봉사하였다. 하지만 사역의 연속성을 위해 한동대학교 97학번 김주환, 유화연 선교사가 5년을 계획하고 2005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다.

(1) 교육사역

NIBC는 현재 두 개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1호 유치원은 NIBC 센터에서 약 20~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폰뜨락트머이에 있으며 2007년 2월에 개원하였다. 그리고 2호 유치원은 NIBC 센터 내에서 운영 중이며 2007년 7월에 개원하였다. 또한 현재 3호 유치원 설립을 위한 모금을 마치고 부지도 구입했으며, 건립

¹¹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outh-East Asia Field Research 팀이다.

¹² 앙코르와트 일대 개발담당기구이다.

계획 중에 있다.

① 사역주체

1호 유치원은 한동대학교 파송 선교사인 유화연 선교사와 캄보디아 현지인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으며, 2호 유치원은 짜루니 선교사(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다.

② 사역대상자

각 지역의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사역 내용

수업 내용	월~목(1호) / 월~금(2호)
	오전 9:00~10:30
	국민의례
	체조
	말씀 묵상(QT)
	말씀 듣기
	성경 암송(한 주에 한 말씀씩)
	수업(몬테소리 교재 이용)
	간식
	조별활동(만들기, 게임, 숫자나 글자교육, 동화 등)

④ 재정

유치원은 수업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8000리엘¹³(\$2), 적게 내는 사람은 2000리엘(\$0.5)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이 국제 유치원으로 확장되어 규모가 커지면 조금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건물은 한국의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2) 리서치 사역

NIBC의 리서치 사역은 독자적으로 또는 SFR, MNA&D¹⁴와 함께 사역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SFR, MNA&D의 사역만이 진행되었다. SFR 2001년 2학기 리서치 팀의 사역은 앙코르와트 지역 사원과 씨엠립 도시의 건축, 도시적 개발 상황의 조사였고, 2002년 1학기 리서치 팀은 씨엠립 지역과 환경에 관련된 기관들의 방문 조사였으며, 2002년 2학기 리서치 팀의 사역은 씨엠립 지역의 교육 사업과 지역 조사였다. 이 밖에 SFR은 NIBC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서 리서치 사역을 하고 있다.

(3) 지역개발 사역

불교국가인 캄보디아는 절이 마을의 중심으로 마을의 형성도, 학교의 건립도 모두 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깊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한다. 따라서 불

¹³ 캄보디아의 화폐 단위.

¹⁴ Mission and Architecture & Design의 약자로 건축과 디자인을 통하여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절 중심의 마을을 교회 중심의 마을로의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이 지역사회 개발사역이다. 이 사역은 앞서 언급된 교육사역인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에서 앙코르 와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아직은 시작을 못하고 있다. 현재 NIBC와 캄보디아 정부는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4) 사회복지 사역

캄보디아에 있는 나환자 및 나환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 사역 중심으로 2-3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에서 외면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기며 이 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크리스천 리더로 잘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지역사회개발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역사회개발 사례의 분석 및 평가는 CHE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CHE는 앞서도 밝혔듯이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 정도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상당 수의 열매를 맺고 있고 있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HE의 기본원리를 따라 평가하면 총체적 지역사회개발 관점에서 지역사회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본 조사 팀은 CHE의 기본원리를 연구상황에 맞게 조금 확장하여서 좀 더 포괄적인 분석틀을 정하였다.

(1) 통합성

통합성은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전인적 필요인 영적인 영역을 핵심으로 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지역사회와 상황에 따라 이들의 우선 순위가 적절하게 바뀔 수는 있다.

캄보디아의 이웃(Neighbor of Cambodia)의 지역사회개발은 전체적으로 통합성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현재 대학과정으로 운영하는 꿈과 미래학교의 사례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꿈과 미래 학교는 우선 재정난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과 기숙사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살며 지내는 것은 사회적인 필요에 대해 충족 받을 수 있다. 또 특별히 이 학교는 농업 기술에 대해 가르쳐 배운 기술을 통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하게끔 하여 신체적 필요에 대해 충족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농업 교육을 하면서 혹은 기숙사에 같이 살면서 현지인 스텝이나 선교사를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끔 한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도 올바르게 바뀌게 하여 정신적인 필요 또한

¹⁵ CHE 선교회 홈페이지 www.makorea.org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면을 종합할 때 꿈과 미래학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필요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을 지향하여 통합성의 원칙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 팀이 방문한 CHE마을 역시 이러한 원리가 비교적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앞에 CHE마을의 효과에서 밝힌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의 소득 상승이 이루어져 신체적 필요가 채워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혜택이 늘어나고 가정 불화가 줄게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사회적인 필요가 채워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CHE마을이 정착 되었을 때 마을 주민의 40%이상이 기독 신자가 된다는 점을 볼 때 신체적 필요, 사회적 필요가 채워진 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필요 또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통합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캄보디아의 이웃(NOC)은 통합적인 사역의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부분을 접근하였을 때 통합적 사역의 원리 측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됨을 알게 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NIBC 센터의 궁극적인 비전은 통합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유치원을 기초로 하여 교회 중심의 마을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은 마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같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 비전의 기초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역시 단순히 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QT시간과 성경암송 시간 등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 지역성

지역성은 외부 사람들이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를 불려 일으키고,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웃(NOC)의 꿈과 미래학교는 지역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다. 우선 학교의 시작은 이들 현지의 자원이 아닌 외부의 자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는 처음부터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의 자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설립 이후 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지역성이 잘 되고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꿈과 미래학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거나 현지인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같은 측면에서 CHE 마을 역시 지역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꿈과 미래학교를 졸업한 현지인 스태프와 마을 사람들이고 선교사나 외부인은 CHE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실질적인 운영을 현지 지도자들이 하기 때문이다. 즉 선교사나 외부인은 현지인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지인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어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CHE 마을에서 하는 수로사업에서 역시 지역사회의 소유권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수로 사업의 필요한 재정을 주민 스스로 모금운동을 통하여 충당하게 하여 수로사업을 그들 스스로 기여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인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지역성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원조는 오히려 이들에게 의존성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첫 단계 적절한 원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성의 원칙을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NIBC는 현재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 단 현재 유치원이 1호, 2호가 완성되어 운영 중이고 3호는 부지를 구입하여 설립 예정 중이다. 앞으로 이 유치원들이 각 마을에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지역사회개발이 진행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이든 지역사회사람들이 이 유치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장기적인 또 지속적인 지역사회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개발성

개발성은 현지인이 스스로 필요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캄보디아의 이웃(NOC)의 개발성 측면은 CHE 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CHE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현지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 하도록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방향만을 제시해줄 뿐이다. CHE 마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처럼, 마을에 의사를 데려와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건강 교육을 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개발성의 원칙을 따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NIBC는 개발성 역시 본격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들어간 후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단 NIBC의 4가지 사업 중 리서치 사업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개발성의 원리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유치원이 들어가는 각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그 필요를 현지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배가성

배가성은 현지인들이 지역사회개발을 통하여 배운 것들을 또 다른 현지인들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캄보디아의 이웃(NOC)의 배가성은 역시 꿈과 미래학교의 사례와 CHE 마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꿈과 미래학교의 스텝들은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또한 꿈과 미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CHE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훈련을 받고 CHE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로 파견되어 마을 사람들이 CHE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섬기며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5)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앞에서 나온 네 가지 분석틀인 통합성, 지역성, 개발성, 배가성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가 씨실과 날실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캄보디아의 이웃(NOC)는 네 가지 원리에 맞추어서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에 반해 NIBC센터는 아직 사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가지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I. 설립을 위한 여건 조사 (Field Research)

설립을 위한 여건 조사는 지역사회개발센터가 실제로 설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품병 마을에 대해 일반적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마을의 필요가 어떠한지 물리적, 사회적, 성장의 필요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품병마을 지역조사

본 조사 팀은 조사를 계획할 당시 품병마을만이 지역사회개발센터와 관련이 있는 마을이라 예상하고 이 마을만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품병 마을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품 뜨록뻘양 껍, 품 뜨록뻘양 뜨바이라는 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세워질 지역사회개발센터가 품병마을뿐 아니라 주변의 두 마을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리서치 지역을 세 마을로 확대하여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는 이 세 마을 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기에 세 마을의 공통적인 내용은 구분 짓지 않고 언급하고, 세 마을간의 차이점이 있을 때만 구분 지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1) 일반개요

(1) 인구

① 품병

품병의 총 가구 수는 62가구이며, 총 인구는 336명¹⁶이다. 총 인구 중 남성은 164명, 여성은 172명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0~2세의 인구수가 19명 인 반면에 3~6세의 총 인구는 16명으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이 마을의 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여자 학생수를 살펴보면 12~14세 때 학생 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나이의 여자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령	남성		여자	
	인구수	학생수	인구수	학생수
0 ~ 2 세	19		15	
3 ~ 4 세	7		9	
5 세	7		6	
6 세	2	2	5	5
7 ~ 11 세	19	19	19	19
12 ~ 14 세	8	8	5	5
15 ~ 17 세	15	15	6	6

¹⁶ 현지인인 메이품(마을리더)의 2007년 마을조사를 참고하였다.

18 ~ 24 세	23	6	27	0
25 ~ 35 세	29		33	
36 ~ 45 세	14		21	
46 ~ 60 세	16		20	
61세 이상	5		6	
총 인구수	164	40	172	35

② 품 프로삐양뜨바잉(Tropiangtbaing)

품 프로삐양 뜨바잉의 총 가구의 수는 43가구이며 총 인구는 229명¹⁷이다. 총 인구 229명 중 남성은 102명, 여성은 127명으로 이 마을은 여성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	남성		여자	
	인구수	학생수	인구수	학생수
0 ~ 2 세	7		7	
3 ~ 4 세	2		13	
5 세	3		1	
6 세	2	2	1	
7 ~ 11 세	16	16	20	20
12 ~ 14 세	6	6	5	5
15 ~ 17 세	9	7	4	2
18 ~ 24 세	14	0	15	
25 ~ 35 세	18		19	
36 ~ 45 세	12		12	
46 ~ 60 세	8		22	
61세 이상	5		8	
총 인구수	102	31	127	27

③ 품 프로삐양꼭(Tropiangkok)

품의 총 가구는 87가구이며, 총 인구는 448명이다 총 인구 중 남성은 243명, 여성은 245명이다.

(2) 위치

① 지리적 위치

품병, 품프로삐양뜨바이, 품프로비양꼭 이 세 마을은 프놈펜 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십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프놈펜 특별시가 속해있는 건달시의 북서쪽 외곽에 위치하여 있다.

아래 지도는 건달(kondal province)의 지도이다.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조사대상지가 속해있는 송롱레오(Sonrongleo)쿰¹⁸인데, 이 쿰 안에는 28개의 품이 존재한다. 조사대상지인 품병, 품프로삐양뜨바이, 품프로비양꼭은 이 쿰 안에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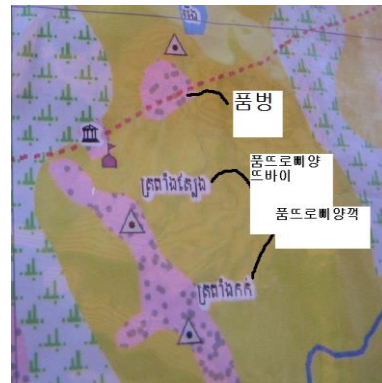
세 품 간의 위치를 지도로 살펴보면 아래 <지도2>와 같다.

¹⁷ 현지인인 메이품(마을리더)의 2007년 마을조사

¹⁸ 쿰은 품보다 한단계 높은 행정구역단위로, 송롱레오 쿰 안에는 28개의 품이 있다. 이 중의 3개의 품(품병, 품프로삐양뜨바이, 품프로비양꼭)이 본 조사팀이 조사를 하였다.



<그림 III-1> 송롱레오 쿨



<그림 III-2> 세 마을간 지도

세모는 품 표시로 품병과 두 마을(품뜨로삐양뜨바이, 뜨로삐양க்)과는 약간의 거리차이가 있다. 품병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절과 학교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도 상에는 주거지를 나타내는 분홍색 표시가 원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했을 때는 절과 품병 마을 주거지 표시 사이 역시 사람들이 사는 곳 이였다. 품뜨로삐양뜨바이와 뜨로삐양각은 떨어져 있지 않고,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붙어 있다.

② 관계적 위치

품 병(Bung), 뜨로비양뜨바이(Tropiangtbaing) 그리고 뜨로비양각(Tropiangkok)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품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또한 세 품의 수원지인 연못, 학교, 절을 중심으로 세 품이 이루어져있기에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우선 이 세 품은 수도인 프놈펜과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고 정해진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프놈펜시와 접근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인터뷰 중 만난 마을 사람 중 일부는 프놈펜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품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그 곳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프놈펜 시내에 방문하기도 한다.

바이짖은 이 품의 송롱레오(Sonrongleo)쿨(Khum)이 아닌 다른 쿨에 소속된 곳이지만 그 곳에는 고등학교와 비교적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품 사람들이 종종 바이짖을 방문한다. 프놈펜보다 가깝기 때문에 프놈펜보다는 높은 관계성을 가진다.

품병에서 조금만 나가면, 품푸나더땡 이라는 곳이 나온다. 그 곳에는 식품이나 생필품 여러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 품 주민들이 물건을 사러 이 곳을 자주 방문한다. 품병과 이 지역(품푸나더땡)과의 관계가 제일 깊다고 할 수 있다.

(3) 지리

송롱레오쿨에 산이 하나 있지만 이 세 품에는 산이 없고 강 또한 없다. 단지 이 품 사람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주는 연못 두 개 있는데 그 연못 두 개는 학교와 절 사이에 있다. 두 개의 우물 사이로는 작은 길이 하나 있다. 특히 뜨로삐양각 품 끝 쪽에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인공 저수지가 있는데 이 물은 수질이 좋지 않아 식수로

는 사용 불가능하고 농업용수 등으로만 사용한다. 실제 본 조사팀이 그 곳을 찾아가 보았을 때 저수지의 빛은 녹색이었고 심한 비린내, 악취가 나고 있었다.

(4) 기후

세 품은 캄보디아의 전반적 기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캄보디아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두 가지로 나뉘며, 기후는 열대몬순 기후이며, 고온 다습하다.

우기는 5월에서 10월이며 평균 강우량이 1,270~1,900mm에 달한다. 한편 건기는 11월에서 4월까지이고 건기 중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가 11월에서 1월까지 계속된다. 2월에서 4월 중에는 건조한 가운데 무더위가 지속된다. 연 중 가장 더운 달은 4월로서 최고 기온은 35도이며, 가장 시원한 시기인 1월의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일교차는 8에서 11도에 달한다.¹⁹

(5) 역사

품 병에서 품은 마을(village)을 뜻하며, 병은 호수를 뜻해서, 호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다. 품이 생기기전 이 곳은 호수를 중심으로 숲이었다. 1975년부터 시작된 폴포트시절²⁰ 당시 폴포트정부에서 숲의 나무를 잘라 품을 만들도록 명령하여 품이 형성되었다.

품 트로빠양꺼에서 트로빠양은 연못을 뜻하며 꺼는 나무이름을 뜻하는데 이 품이 연못 옆에 형성되었고 꺼라는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품은 폴포트시절인 1975년전부터 품이 존재했지만 폴포트시절에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강제이주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1979년 이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

품 트로빠양뜨바이에서 트로빠양은 연못, 뜨바이는 역시 나무 이름을 뜻한다. 이 품은 트로빠양꺼 품이 점점 커지면서 그 옆의 마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6) 자연환경으로 인한 영향

기본적으로 위에서 밝힌 캄보디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므로 물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아무일 없이 지내거나 근처 공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나가 부업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

이 품을 비롯한 캄보디아의 많은 시골지역들은 상 하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특히 이 품은 우물을 팔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연못과 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해에는 마실 물과 농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2) 정치분야

(1) 정치 구조

① 품 자치

¹⁹ 주캄보디아대사관상무관실(KOTRA), 캄보디아 출장 및 비즈니스 안내자료, 2008

마을 단위의 행정구역인 품에는 메이품이라는 마을 리더가 있다. 이 메이품은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메이품 역할에 집중하며 정부로부터 부여되는 월급을 받는다. 메이품은 주민 선거에 의하여 선출이 된다. 하지만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리더의 능력에 따라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본 조사 팀이 만나고 온 세 품의 메이품들은 모두 10년 이상 메이품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메이품 밑에는 메이품의 일을 도와주는 아노품과 짐무이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품마다 그 수는 다르다. 아노품은 부 메이품이라 할 수 있으며 메이품이 없을 때 그의 역할을 대신한다. 짐무이까는 메이품을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한다. 이들 모두 역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혀진다.

주민들이 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없고 메이품과 그 도우미(아노품과 짐무이까)들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② 콤과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송릉레옴에는 총 28개의 품이 있다. 1년에 몇 번씩 각각의 메이품들이 메이콤²¹을 중심으로 콤오피스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

3) 경제분야

(1) 주요산업

이 세 품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세 품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기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있다. 건기가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은 주변 도시(프놈펜, 바이짠 등)의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남성은 건축 일을 하거나 팜 나무의 열매를 따서 주스나 설탕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다. 또 그 밖에 목수와 요리사,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학교 교사, 경찰 등이 소수로 존재한다.

(2) 생산품

농업을 통해 벼를 수확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확 품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기보다 자급자족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밖에 생산품으로는 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설탕과 주스를 만드는 것이 있다. 여기서 얻는 설탕과 주스는 시장에 갖다 팔아 수익을 올리곤 한다.

(3) 월소득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월 소득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또 농업을 통해 생산한 벼를 대부분 자급자족하는데 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건기 때 건축 일을 하거나 팜 트리 열매를 통한 주스, 설탕을 파는 일을 통해서 \$ 30~ 50 정도를 번다. 그 중 몇몇은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받은 자급자족 받은 시장에 팔아 1년에 \$ 400 정도를 버는 가정도 있었다. 이

²¹ 콤의 리더

밖에 요리사는 \$ 180 ~ 200 정도를 벌고 있고 목수는 \$ 100 정도를 벌다. 즉 대부분 평균 월 소득 \$ 50 정도를 벌고 있다.

4) 생활, 사회, 문화분야

(1) 가족형태

캄보디아는 모계사회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본 조사 팀이 조사한 세 품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족형태는 4세대가 같이 사는 집부터 2세대만 같이 사는 집까지 다양하였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형태가 많이 있었다.

(2) 식생활

현장 조사 시, 품병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대부분이 하루에 3끼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끼니 수에 대해서 나머지 두 품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 마을이 거의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은 밥과 국, 국수 등을 먹는다. 식수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끓여서 마신다.

(3) 주거

품병 주민들의 집은 주로 나무로 만든 집으로 일층에는 우리나라의 마루와 같은 것이 있고 이층에 침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집 뒤나 논에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모든 집 뒤편에는 가축을 키우는 우리가 있어 이 곳에서 가축을 기르지만 가축이 우리에만 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4) 대중매체

품병 주민들에게 대중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 대표적이다. 방문한 가정의 많은 수가 상태는 다르지만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보건

① 병원

쿤 오피스 근처에 작은 보건소(health clinic)가 있다. 하지만 이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병만을 치료하는 수준이어서 큰 병이 생길 때에는 바이지이나 프놈펜에 있는 비교적 큰 병원으로 간다. 위급할 때에는 병원에 전화하면 의사가 왕진을 오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 주민이 감당하기는 부담스럽다.

② 의약품의 현황

약값이 비싸고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6) 교통

대부분 가정에 적어도 한대씩 오토바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를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갈 때는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마을에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한다. 마을과 마을, 마을 안에서 이동이 필요할 때는 걸어 다니거나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5) 교육분야

(1) 학교수

품에는 초등학교 한 개가 있고, 중학교는 쿨 내에 하나가 있다.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로 표시)

(2) 특징

절 옆에 위치한 이 품의 유일한 학교인 초등학교는 현재 500여명의 학생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재학 중이다. 주변의 세 마을의 학생들 모두 품병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1975년 폴콧시대 전부터 학교가 있었다가 폴콧시대에 이 학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 옆에 위치한 절 안의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2003년 다시 새롭게 건물을 짓고 시작하게 되었다.

6) 종교분야

(1) 분포

본 팀이 만나본 사람들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였다.

(2) 종교성 인식

이 세 품 역시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말하였다.

불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기 보다는 하나의 관습이자 문화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캄보디아 불교는 일반 소승불교가 아니라 힌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닌 다신론을 인정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품병의 학교 바로 옆에 절이 하나 있다. 이 절이 실제로 행정 구역상 품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품병 뿐 만 아니라 품뜨로삐양뜨바이와 뜨로삐양꺼에 또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3) 기독교 현황

품병 안에는 현재 본 지역사회개발 센터와 연관이 있는 고아원 (heaven village organization)이 세워져 있다. 현지인 전도사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아이들과 몇몇 주민이 예배에 참여하나 정확한 교인 수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수가 기독교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다고 하였고 앞에 언급한 고아원을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독교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 지역개발을 위한 품병마을의 필요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에서는 필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 중 본 조사팀은 개발을 위해 필요를 물리적, 사회적, 성장적(영적)으로 보는 관점을 택하기로 한다. 즉 첫째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인 물리적 필요, 둘째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기본 필요인 사회적 필요, 셋째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위한 성장의 필요이다. 이 세가지 영역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 이 세가지가 같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필요를 먼저 접근하고 후에 사회적인 필요와 성장의 필요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1) 물리적 필요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있어서 물리적 필요들(physical)은 인간의 생존과 가장 관련된 필요들로 가장 기초적이며 응급적인 순위를 지니고 있는 필요하다. 본 조사팀은 지역의 여건에 대하여 물리적 필요에 대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또 조사팀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 다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지²²를 바탕으로 마을사람들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그렇게 하여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분석을 내려 이 마을의 궁극적인 필요들에 대해 나타내었다.

(1) 지역의 여건

마을의 전반적인 여건은 좋지 못하였다. 지역의 여건을 크게 8가지로 나누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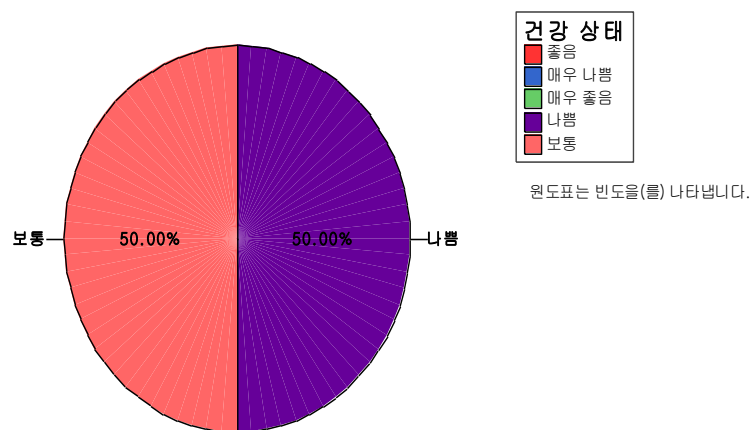
항목	여건
공기	집 안에 창문이 존재하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음. 화덕이 집 안과 가까이에 있어 그 연기가 집 안에 영향을 줌.
물	마을 주변에 있는 우물을 사용한다. 식수는 이 물을 끓여서 먹고 있음.
음식	음식 재료는 근처 시장에서 사오며 보통 밥과 반찬 한 두 가지로 생활함.
위생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부엌에 대한 관리가 없을 뿐더러 동물들이 이 곳을 자주 돌아다니기도 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못함.
기본적 건강관리	가까운 곳에 작은 보건소가 있지만 열악함. 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함. 비상약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음
에너지	전기 들어오지 못함. 대부분의 가정에서 배터리를 사

	용.
집	대부분 고상식 ²³ 구조로 되어있음.
수입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자급자족. 남자는 건축 일, 여자는 봉제공장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수입이 많지는 않는다.

(2) 지역사회개발관련 주민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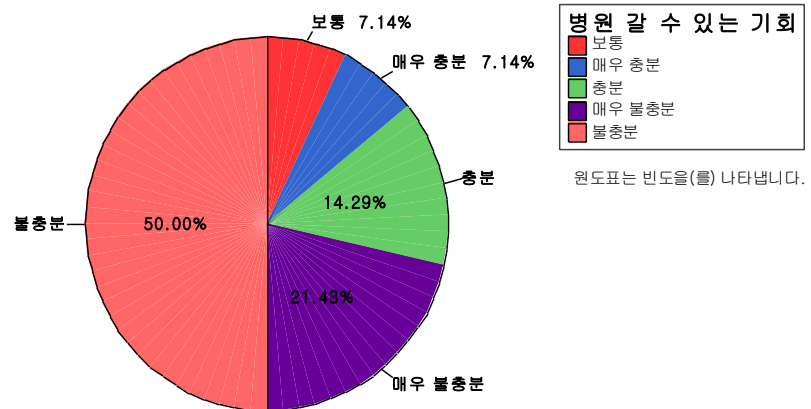
본 조사팀은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관하여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품병마을의 총 가구 66가구 중 14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 전반적인 결과는 마을 사람들은 물, 위생, 보건,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부족함에 대해 충족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였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설문조사의 각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① 보건 및 건강



위의 원 도표는 **당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과 나쁨이라는 응답이 각각 50%가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³ 아래층은 대개 평상과 같은 것을 두어서 쉬는 곳이며 아올러 가축들이 사는 곳으로 사용되고,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주거공간으로 연결되는 구조(101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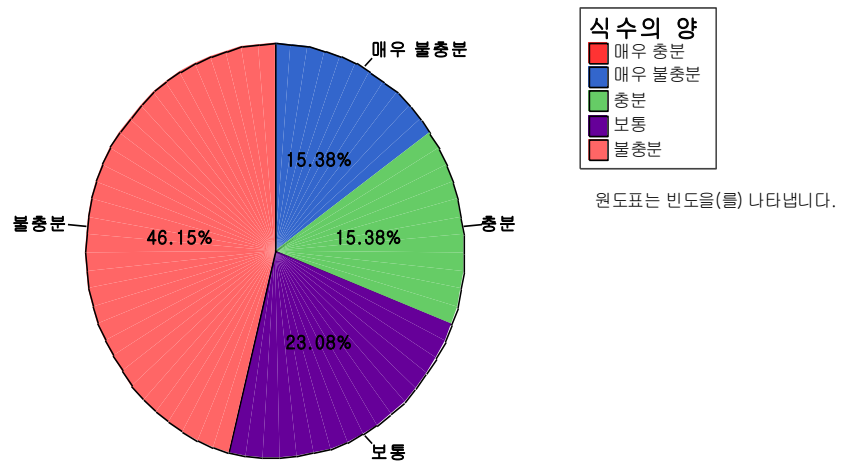


두 번째 원 도표는 필요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는 불충분 50%, 매우 불충분이 21.43%로 필요할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약 7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것으로 보아 이 마을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마을 안에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변 마을에 작은 보건소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곳에서는 간단한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인터뷰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에 병원이 생기길 원하였을 정도로 이에 대한 필요가 특별히 두드러진다. 또한 병원 갈 기회가 충분치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이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에게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병원 혹은 보건소가 필요하고 가능한 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

② 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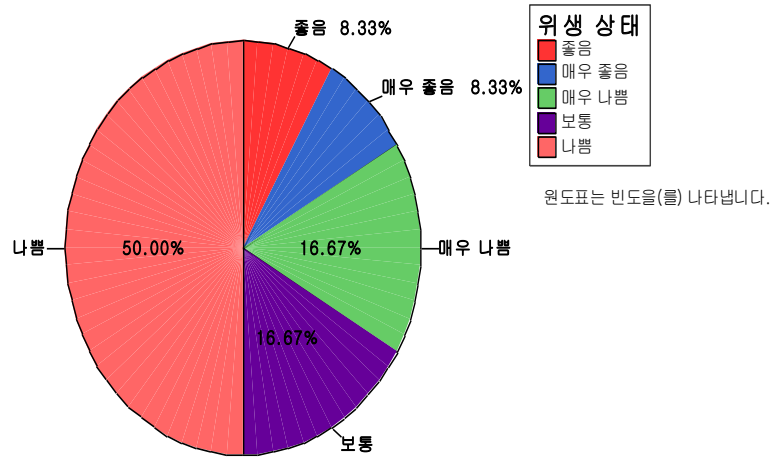
다음은 식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대부분 마을 주변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끓여 먹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어떠한지에 대해 응답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위의 원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불충분 46.15%, 매우 불충분 15.38%로 마을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식수의 양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식수를 마을 주변의 연못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기 철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기 철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건기 철에는 물이 없어 주변 마을에서 사오기도 한다. 이 것은 다른 의식주 비용도 부족한 이들에게 조금씩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별히 이 마을은 우물을 파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식수에 대한 부족은 다른 곳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위생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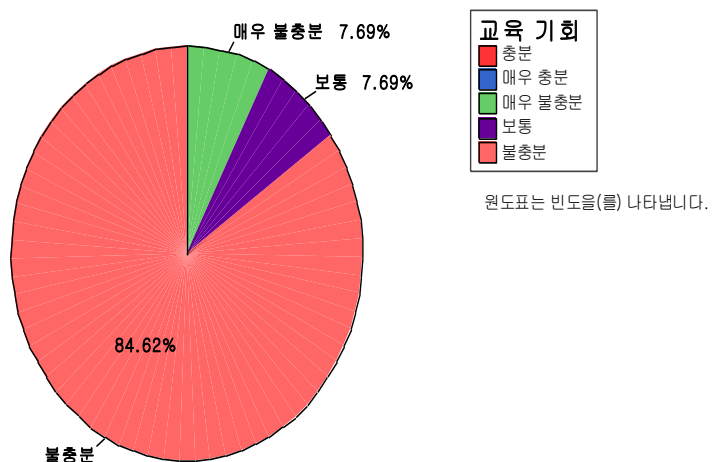
다음은 마을의 위생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원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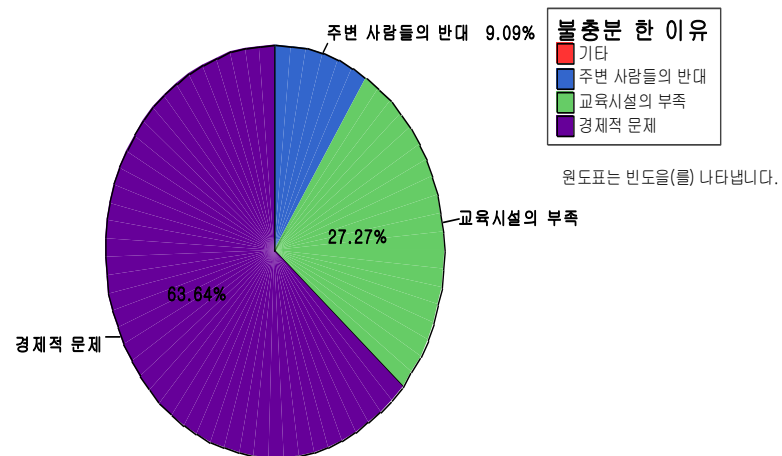
이에 50%는 나쁨, 16.67% 매우 나쁘다고 응답하여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가 마을의 위생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인터뷰 하였을 때 마을의 위생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였다. 특히 화장실을 소유한 가정이 많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항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화장실을 따로 짓고 싶어하지만 이를 지을만한 돈이 없어서 대부분 짓지 못하고 집 뒷 편이나 논에서 구멍을 판 곳을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 부엌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어떤 가정은 부엌에 가축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기도 할 정도였다.

④ 교육

다음은 마을의 교육과 관련 된 인식 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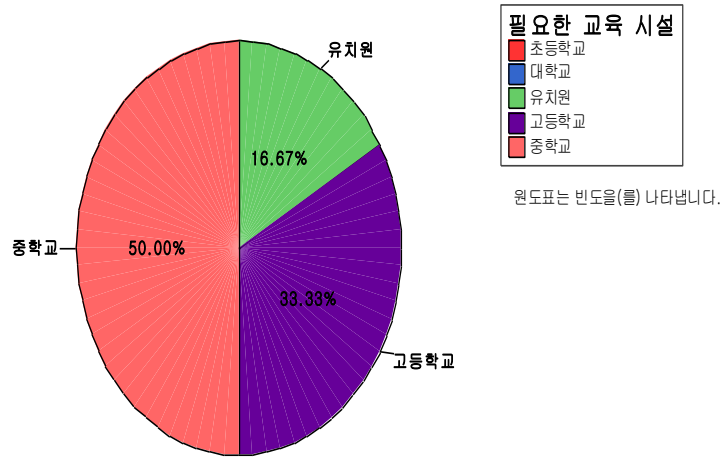


위의 도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다수인 84.62%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 마을의 학교는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며 그 외 다른 학교는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교육시설의 부족도 27.2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63.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마을 학생들 중 특히 여학생들은 중학교에 다닐 때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 마을에 학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오고 가는 통학의 문제도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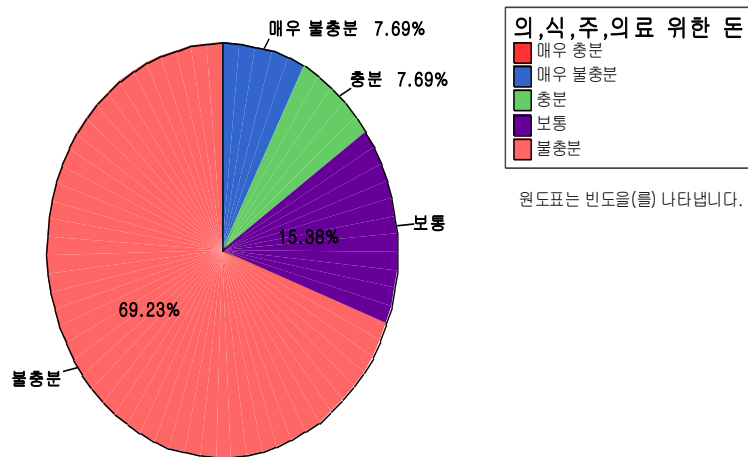
다음은 **마을의 필요한 교육시설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은 초등학교의 상급학교가 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도 16.67%의 응답을 보여주었다.

⑤ 의식주를 위한 재정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 의, 식, 주, 의료 등을 위한 돈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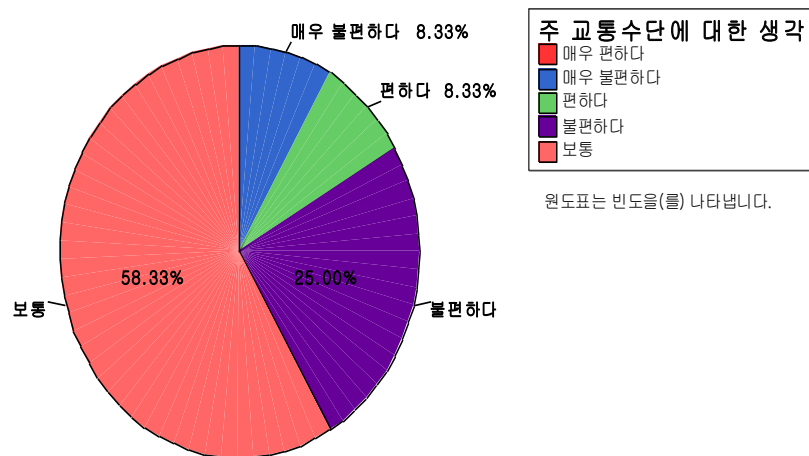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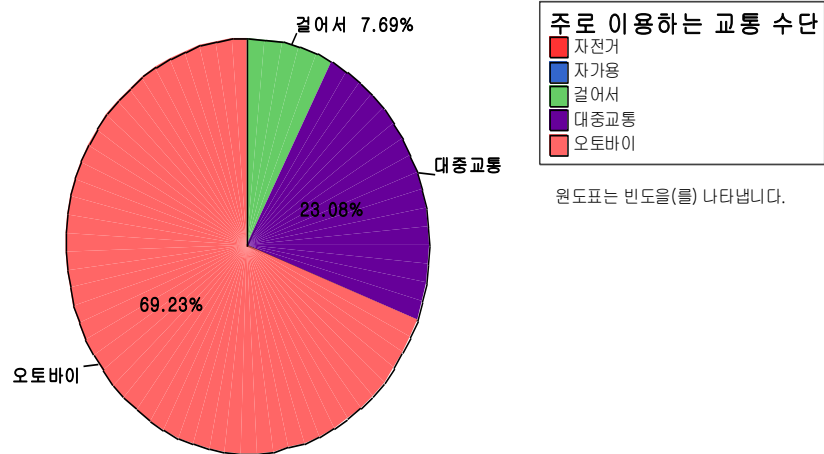


이에 대한 응답은 69.23%가 불충분 7.69%가 매우 불충분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의식주와 보건을 위해 필요한 돈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⑥ 교통 수단

다음은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첫 번째 도표는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대한 응답이고 두 번째 도표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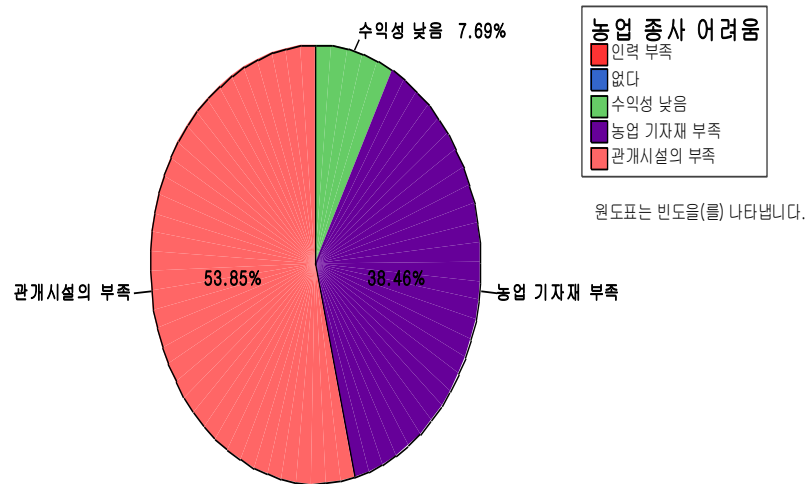


주 이용 교통수단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69.23%를 나타내어 마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일부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58.33%로 가장 높고 불편하다는 25%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음을 보

여 주었다.

⑦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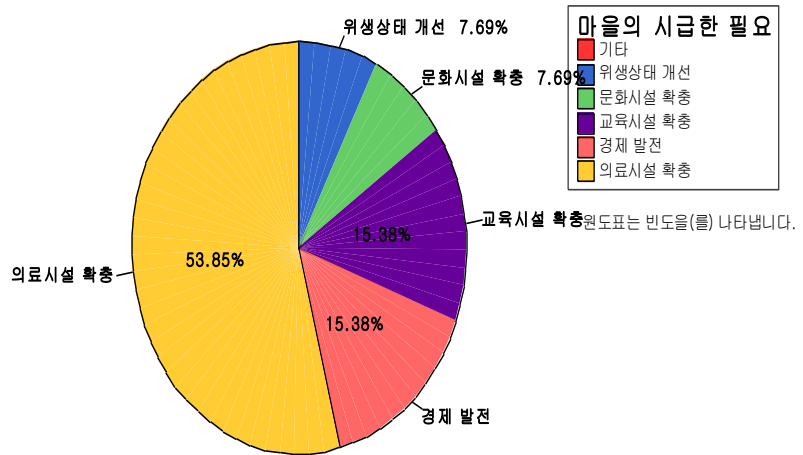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관개시설의 부족으로 53.85%이고 두 번째는 농업 기자재 부족으로 38.46%이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에 있어서 전적으로 비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은 건기 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 어려움은 농업 기자재 부족이다. 이들은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만 이용할 뿐 그 외 다른 농기구들은 없기 때문이다.

⑧ 마을의 시급한 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가장 시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금 마을에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53.85%). 그 다음으로 교육시설 확충(15.38%), 경제 발전(15.38%)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3) 요약

마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기본적 필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제외한 병원, 식수, 위생, 교육 등 대부분 필요에 대해 불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의 수치가 반 이상이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특별히 교육기회에 대한 필요와 병원에 대한 필요가 가장 컸다.

2) 사회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는 사회로부터 공급되는 필요이며 이 필요는 사회차원의 구조적인 필요와 심미적 차원인 개인적인 필요로 나뉘질 수 있다. 구조적인 필요는 거시적(macro)으로 사회 구조로부터 누릴 수 있는 독립, 자유, 안정의 삶에 대한 필요이고, 개인적인 필요는 미시적(micro)으로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속감, 사랑,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지역사회나 가정이 포함된다. 이는 다시 표현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얼마나 구성원들의 가치를 존중하는가에 이 필요들이 결정된다.

본 조사 팀은 언급한 대로 물리적 필요, 사회적 필요, 성장의 필요 중에서 생존에 관련된 최 우선순위인 물리적 필요의 범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사회적 필요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 조사에서 구조적 필요와 개인적 필요가 캄보디아 일반 상황과 품병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된다. 그래서 본 조사 팀이 분석한 품병의 사회적인 필요는 캄보디아 일반 상황을 바탕으로 조사 자들의 관찰 조사와 함께 고려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구조적인 필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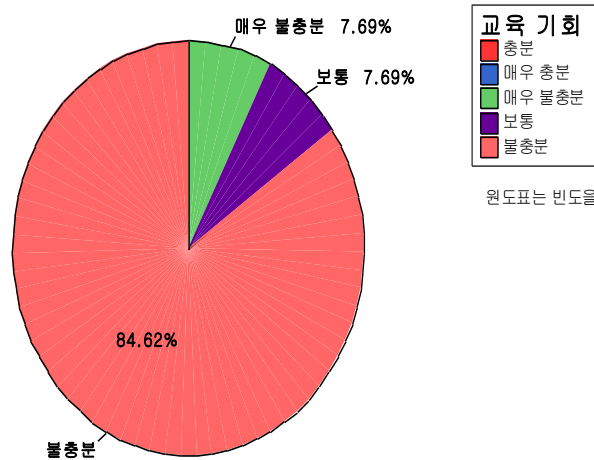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4년 동안의 우민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시기가 있었다. 인구의 800만 중에 200명 가량이 학살로 죽어갔으며, 무산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농민들은 강제노역으로 전에 누렸던 독립된 삶과 자유와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 당하였다. 붕괴되고 불안정한 정치의 혼란함 속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회구조에서 부여되는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의 삶, 자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30여 년 전에 행하여진 일이지만, 이 사건은 현재 캄보디아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킬링필드를 범한 폴 포트 정부가 실각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이 베트남 공산 정권의 지배는 또 다시 한번 캄보디아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회복의 시기를 놓쳐버린 채 진행되는 경제성장과 개발은 또 다른 양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키는데, 21세기의 문명과 그 수준 까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의 개발의 혼재, 농촌-도시간의 급격한 빈부차이 등의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안정된 시기라고 말하는 지금의 캄보디아의 겉으로 나타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독립, 자유, 안전이 보장되는 듯 보이나 개인의 삶에 이러한 필요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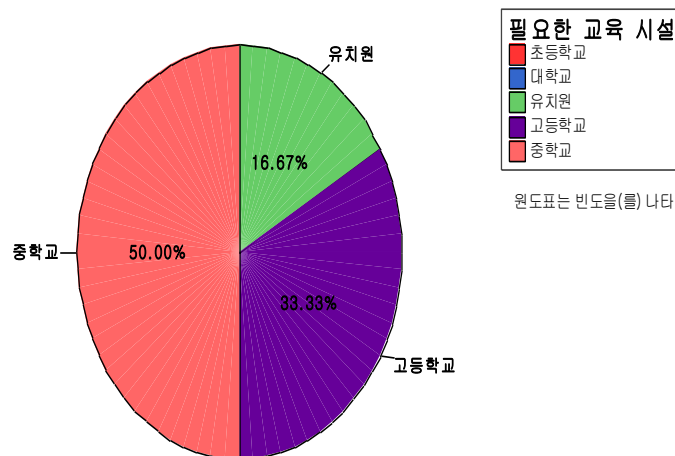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음이 오직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가에 대하여 질문해보았을 때 이 지역에는 교육받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다.

학교라는 곳은 지식연마의 장일 뿐 더러 사회를 경험하며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장이다. 다르게 말하면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성숙한 인격체로 바로 서게 되는 과정이자 삶을 개척하는 독립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킬링필드로 지식인이 없어 교육의 흐름이 단절된 캄보디아가 가난과 무지에서 탈출할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교육임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조사 팀이 조사한 사항 중 학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비추어 보면 교육의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앞에 나온 지역 개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품병지역에는 초등학교 1개가 있으며 동일한 쿼 안에 조금 떨어진 곳에 중학교 1개가 있다.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설문 자료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품병 주민들과 인터뷰 시,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진학시킬 것”이 나왔다.



원도표는 빈도를(률) 나타냅니다.



원도표는 빈도를(률) 나타냅니다.

다른 현지 전문가와 인터뷰 시, 캄보디아 전체적으로 지식인의 부족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한창 교육을 받아야 할 여학생들은 함께 노동을 시작함으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실제로 한 조사 자료에서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여성이 교육을 충분히 받은 여성보다 혼인 연령이 낮음과 연결이 되고, 결국 가난과 무지의 반복을 낳는 구조를 또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비단 공교육의 필요만이 아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도 교육은 필요한데, 글씨를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지 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설문지를 부탁했을

때 확연히 드러났는데, 평균 3명 중 1명이 글을 읽지 못해서 응답자가 되지 못하거나 통역과 함께 응답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일반 주민을 위한 문맹교육, 산술교육,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품병 주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주민의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 될 것이라 예상된다.

(2) 개인적인 필요들

한 번 붕괴된 사회는 사회구조의 문제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많은 현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캄보디아는 체면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1975~1979년 킬링필드를 경험하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억압의 영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벽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품병 지역사회 공동체 가운데의 신뢰와 나눔 가운데 개인의 삶이 풍성해 지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또한 폴폴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이들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되어있다. 억누름과 공포를 경험하며 성장한 이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의 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캄보디아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킬링필드 때 행하여진 강제 결혼²⁴을 들 수 있겠다. 농민들이 강제 이주되면서 새로운 가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주 전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킬링필드가 끝나고 진짜 나의 가족은 어느 가족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개인의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가정이 해체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결혼 후, 남성들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 조사 팀은 여성 가장가구의 비율이 높은 모계사회로 그 가운데 느끼는 남성의 소외감 때문에 또는 바르지 않은 가족관과 결혼관 때문이라고 정의 하려 한다. 현지 조사 인터뷰 중 어느 26세 여성이 이와 같은 실례가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오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캄보디아에는 이와 같이 깨어진 가정이 많다. 혼자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 여성의 부담감과 어려움,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양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낮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3) 성장의 필요

²⁴ 강제로 혼인

성장의 필요란 인간의 초월자에 대한 의식과 관계성 속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필요나 신앙 생활의 필요를 말한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며 결국에는 존재의 궁극을 추구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총체적 선교란 물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과 더불어 영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물리적, 사회적인 필요만 충족시켜 준다면, 물리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필요보다 성장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온전한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물리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일반적 지역사회복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성장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1) 지역의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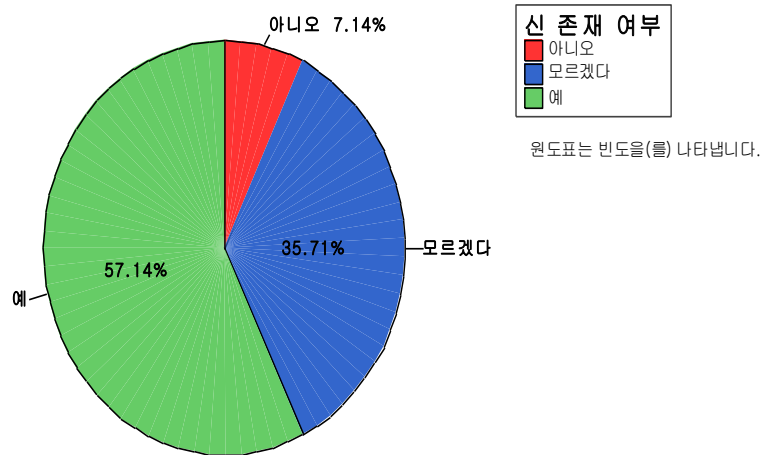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이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완전한 불교국가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마을마다 집집마다 귀신을 위한 신당이 있으며 이는 과거 힌두교의 영향이 국민들의 삶에 강하게 베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캄보디아는 불교와 힌두교와 정령숭배사상이 어우러져있는 국가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연이 가진 초자연적인 힘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작용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초능력에 대하여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원인 없이 가족들이 죽어 갈 때 이는 모두 악령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두려움과 억압이 이들 삶에 존재한다.

또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 중 하나인宿命(宿命)을 믿는다. 즉, 이들은 인과응보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된다는 개념이다. 이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전생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현재의 행위가 다음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품병 주민과 인터뷰 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응답이 나왔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삶이 운명 지어졌다고 여겨지는 이 생각은 사회의 부정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태도, 불의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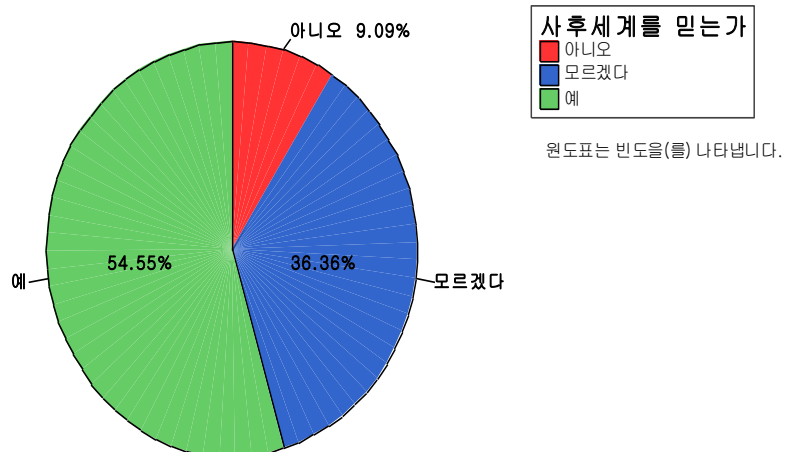
(2) 주민들의 인식

① 신 존재 여부



퐁 병 마을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 물었을 때 신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57.14%로, 절반 정도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집집마다 작은 신당이 하나씩은 꼭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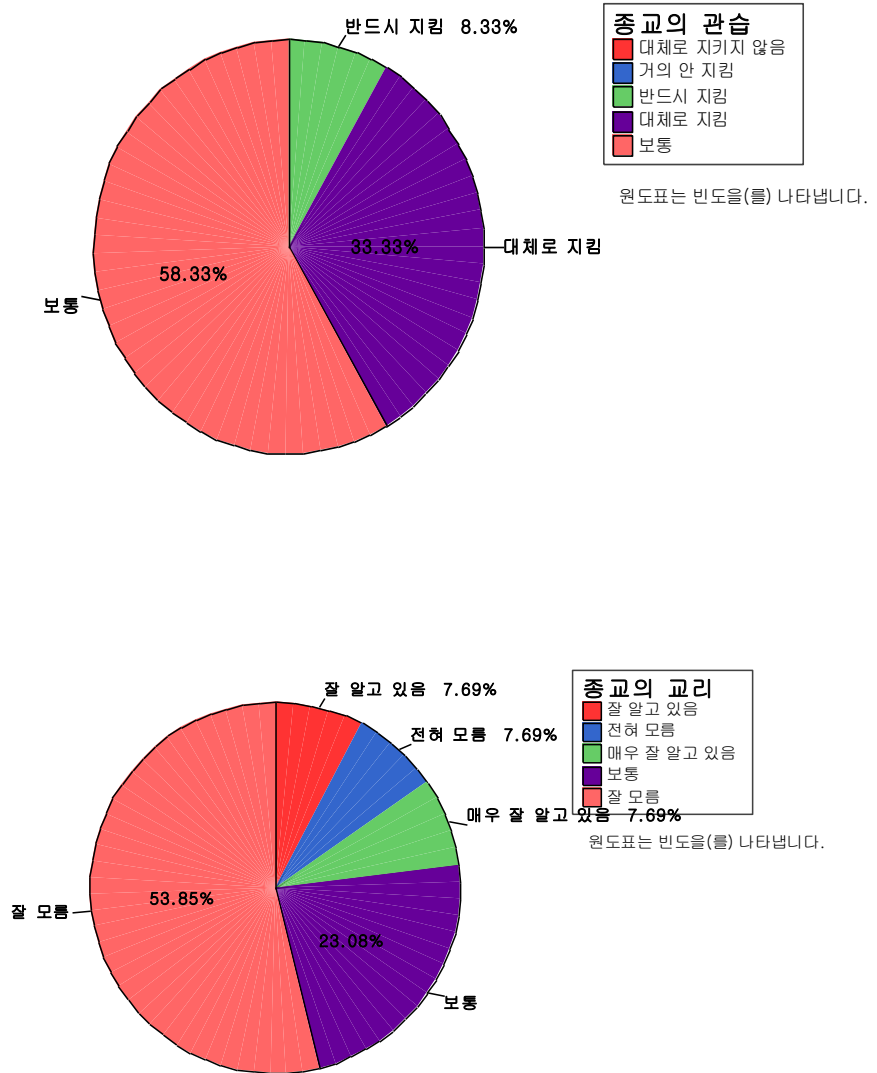
② 사후 세계



이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사후 세계를 믿는다는 응답이 54.55%로, 절반 정도가 사후 세계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캄보디아 사람들은 죽음을 믿는데,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이들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서 현재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③ 종교의 관습 및 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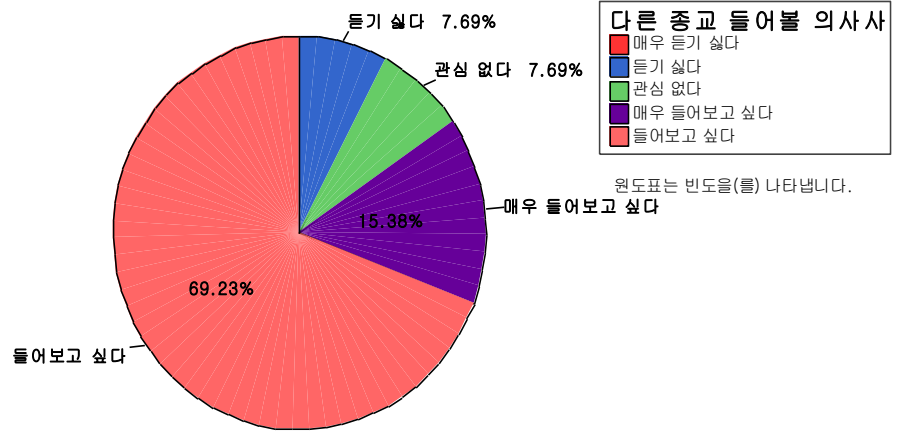


이들에게 종교의 관습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이 58.33%, 대체로 지킴이 33.33%, 반드시 지킴이 8.33%로 응답한 사람 모두 종교 관습을 지킨다고 했으며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또한 종교의 교리를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3.85%,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7.69%로 절반 이상이 종교의 교리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으로 보아 이들에게 종교는 진정한 종교로서의 의미보다 삶 속의 일부로 인식하며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종교의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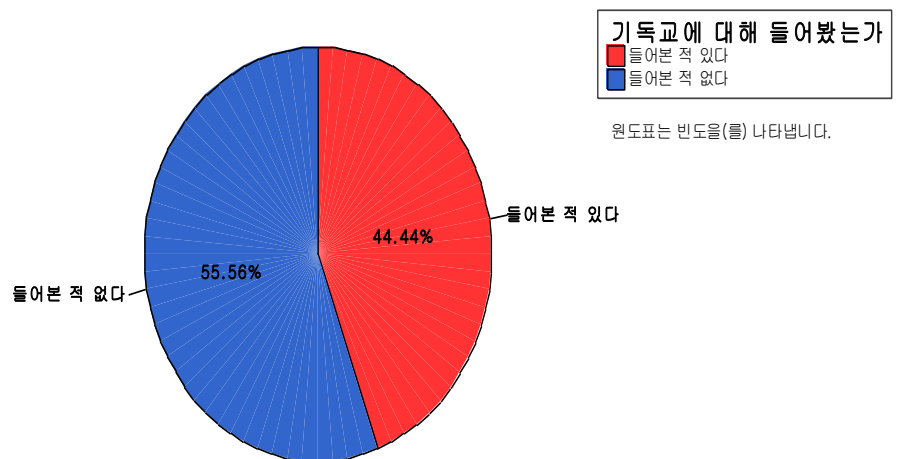
④ 타 종교에 대한 인식



다른 종교에 대해 들어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들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69.23%, 매우 들어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15.38%로, 타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볼 때,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도 이들이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타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은 비단 기독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 들어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

람이 55.56%,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44.44%로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보인다.

(3) 요약

성장의 필요는 쉽게 말해 종교적 필요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필요를 말한다. 캄보디아의 종교는 불교를 중심으로 힌두교와 정령숭배 사상이 모두 어우러져있다. 따라서 불교의 인과응보의 숙명을 믿어 현재의 삶을 전생과 연관 지어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거나 정령숭배의 영향으로 자연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기도 한다.

한편 종교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품병 마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이 다수이다. 또 한 자신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 성장의 필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단 불교적 세계관 중 숙명론적 세계관, 즉 현재의 삶은 전생의 삶으로 인한 것이라는 세계관은 이들에게 뿌리 박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느냐가 성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IV. 품병마을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 방안 제언

설립 방안 제언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룬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의 이론적 부분과 사례, 그리고 마을의 객관적인 상황과 필요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품병마을의 지역사회개발의 센터의 설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기본 방향, 설립 제반, 운영방식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에 대한 제언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 품병마을에 세워질 총체적 지역사회개발센터가 나아가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개발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며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인 중심으로 현지의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념한다.

둘째, 지역사회개발센터는 대상자의 특정 필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물리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충족시켜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개발센터는 현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지 사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도와준다

넷째, 지역사회개발센터는 세워진 현지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습득한 지역사회개발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여 현지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다.

다섯째, 지역사회개발센터는 결국 이 마을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길러진 현지 사역자를 통해 캄보디아 전체와 동남아시아, 열방의 총체적인 변화를 꿈꾼다.

2. 설립 제반에 관한 제언

1) 구성

지역사회개발센터를 설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 설립 초

반에는 지역사회개발지도자 한 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한 핵심 가치들을 전수해준다. 설립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이 지도자와 상의 하에 5~7명의 개발 요원들을 뽑아 이들을 훈련시킨 후 이 후의 사역을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를 동참시키도록 한다.

2) 설립 유형

지역사회개발은 결국에는 총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지만 처음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교육형이다 이 유형은 유치원으로 시작하든 초등학교과정 혹은 중 고등학교과정으로 시작하든 교육을 중심으로 센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형은 대상 마을의 유치원과 중 고등학교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 혹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농업형으로 특히 시골 마을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 상황에 알맞은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지도자를 양성을 중심으로 농업교육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시작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의료형으로 시골마을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을 고려 할 때 획기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과 간단한 의료 교육을 제공하면서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통합형으로 앞서 제시한 것을 다 같이 혹은 두 가지를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 가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에 따르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설립 유형은 첫 시작의 강조점이 다를 뿐 나중에는 총체적으로 이러한 필요들을 차례대로 채워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 동시에 이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시작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교회와 센터가 같이 있는 유형을 제안한다.

3) 설립 단계

설립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미 나와있는 센터 설립의 단계를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센터는 총 4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정착기

정착기에는 현재 센터가 설립될 장소에는 후원으로 설립되고 현지인이 담당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 사역을 강조하고 소규모 학교를 시작하며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뼈대 형성기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다. 또 학교를 국제학교로 확장하면서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변환한다. 기도의 집은 확장되어 기도사역과 함께 중보기도센터로 바뀌게 된다.

(3) 인적자원 훈련기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단계이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훈련을 진행하고 국제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지인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단계이다.

(4) 훈련 사역

세 번째 단계에서 양성한 현지인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훈련시켜 리더십과 영성을 겸비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여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낸다.

4) 설립 규모

센터의 규모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점 더 확장 되는 형태로 한다. 소규모로 시작할 때 지역사회 중심으로 현지인의 힘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은 품방 마을을 중심으로 하되 점점 확장하여 주변 마을을 비롯하여 28개의 품(마을)로 이루어진 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을 한다. 확장은 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각 품(마을)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형태로 현지인 스스로 배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 설립 방법

현재 센터를 위한 부지와 기본적인 건물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 방법에 대해 제언을 할 때 부지선정 또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언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하고 사역을 할 때는 철저히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센터는 기존의 있는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예를 들면 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 할 때에도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작하면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을의 리더들과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설립이 진행되는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방법은 설립의 속도는 느리더라도 센터의 주인이 지역사회임을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이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

1) 운영 주체에 대한 제언

지역사회의 운영 주체는 크게 두 가지, 선교사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개발을 실시하는 것과 선교사와 현지인 리더와 함께 연합하여 개발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 팀은 세워질 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역자 자신과 현지인 이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기서 선교사와 현지인리더와의 역할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데, 센터의 운영주체로서의 선교사는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director)으로 조언자(counselor)로서의 운영 주체자이다. 반면, 센터의 운영주체로서 현지인 리더는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이다. 이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을 동원하여 의견을 모으고, 계획하고, 직접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행자임을 뜻한다.

여기서 본 조사 팀은 현지 조사 기간에 방문하였던 CRWRC(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²⁵의 지역사회 조직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CRWRC는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의 임원들을 조직하고, 이들을 세우고 이들의 역량을 계발하여 운영주체로서 현지인의 역할을 열 단계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 이를 언급하기에 앞서 CRWRC의 조직과정은 목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현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가치와 문화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존중함을 밝혀 둔다. (여기서 CO는 선교사이다.)

1단계, 지역사회로의 접근의 단계이다.

선교사는 마을의 정보를 모으고 지역의 리더들(local authority, key people)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2단계, 지역사회 안으로의 투입 단계이다.

좀 더 깊이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이해하는 단계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는 단계이다. 여기서 선교사의 태도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3단계, 함께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일할 마을의 리더십(core group)을 모으는 단계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동원되고 선출 된 5-7명의 그룹을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이라고 이름 하고, 이들에게 마을의 리더십으로서의 책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다.

4단계, CBO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단계이다.

CO는 CBO와 함께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분석하며, 우선 해결해야 할 것들을 정한다. 그리고 나서, CBO 구성원들은 지역사회구성원 회의 시간을 정하고, 회의 시간에 무엇을 안전으로 두고 토의 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한다.

5단계, CBO에 속한 리더들의 지식과 강점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CO는 CBO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CBO로서의 기본적인 역량들(planning, management, research 등)을 교육한다.

6단계, 현장 참여 조사 단계이다.

본 조사 팀의 경우 지역의 필요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쳐진 경우가 하나, 이는 외부인의 눈으로 본 현장참여조사이므로 현지 리더십이 현지 리더십의 눈으로 본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 내는 것이다. 이 필요들을 채우기 위한 자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으로 한다.

7단계,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계획의 단계이다.

세워진 지역 위원회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계획과 예산, 필요한 자원들에 대하여 정리한다. 각 리더십의 제안과 추천에 따라 지역사회 집행 계획이 세워진다.

8단계,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 및 동원의 단계이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 불 충분 할 때 만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것으로 한다.

9단계, 지역사회개발의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단계이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평가는 목표에 대한 실행에 관한 모니터와 평가를 하는 단계로, 실행 결과에 대한 효과를

10단계,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로부터의 떠남의 단계이다.

CO는 CBO에게 독립과 자립성을 키우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사회를 떠날 준비를 한다. 지역사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해결하고 관리해 나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CBO를 위한 교육과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마을들과의 네트워킹의 과정 또한 필요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재정 운영에 대한 제언

센터의 재정 운영에 대하여는 후원에 의지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자립하여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지역사회개발의 기본 방향에서 언급한대로 지역주민과 사역자와의 협력으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원과 자립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센터는 후원으로 시작하다가 점진적으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언한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의 주체가 현지인 리더로 세워져 가는데 발맞추어 지역사회개발의 재정운영 또한 현지중심의 자립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특히, 재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지역 개발과와의 차이점을 두고 싶은 점은 후원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는 원조나 지원으로 인한 자립성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위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원조와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가 해 보려 하는 의지 없이 센터에서 공급되는 것만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오(誤)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또는 현재에도 이러한 실수를 행하는 많은 지역사회개발센터들이 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자립을 일구어 나가면서 센터에 대한 주인의식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다. 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 센터는 그저 하나의 세워진 건물로 밖에는 의미가 없다. 자립을 위하여 함께 땀 흘려 함께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가르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제언한다. 앞으로 진행될 농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맞물려가며 자립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사례연구에서 언급된 캄보디아의 이웃(NOC)의 꿈과 미래의 학교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그 밖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물리적,인적)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펼쳐가는 것으로 자립을 이루어 나간다.

4.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은 현지인이 문제의 주인이자 또한 그 문제의 해결의 주인임을 인식하며 마을 공동체의 개발의지와 그에 비롯된 주민 동의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마을수준에 가장 적절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이루어져야 함을 앞서 제언한다.

1) 물리적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

물리적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프로그램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은 복음에 가치와 목적을 둔 하나의 도구임을 밝혀 둔다.

(1) 정수기(water filter) 보급 사업

각 가정마다 한 대의 정수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수기 보급을 100% 지원으로 이루어 지지 않게 함을 제언하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의존성을 갖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급을 하던지, 또는 주민들의 분량과 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나누어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우물 파기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정(tube well)이나, 우물을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우물 파는 프로그램은 고여 있는 오염된 연못에서 밖에 생활용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물은 파서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3) 화장실 보급

단기적으로는 마을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보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가정마다 화장실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장실이 없어서 생겨나는 수인성 질병과 지면으로 방치되는 용변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피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과 실행들을 마을 리더들이 해결하도록 한다.

(4) 보건소(health clinic) 건립

품병 안에 간단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건소를 세우는 것을 제언한다. 보건소에서 피부병, 설사, 감기 등의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플 때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마을 안에서 저렴한 값으로 약을 구입하고 간단한 치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위생교육

기본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후 치료의 개념보다 예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적으로 위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전체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리도구와 식기 류의 청결에 관하여, 동물의 오물에 대한 처리 등 보다 나은 환경 가운데 건강히 생활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6) 농기계 보급

농사일을 계속 해온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한다. 현지 농업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농기계가 무엇이지 고민하며, 주민들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 기구인지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 주민들의 농업여건과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진행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관개시설

농업 생산량 증대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강수량에 의존하여 그 해의 농업이 좌지우지되며 1모작 밖에 지을 수 없었던 현재 농업의 상태에서 벗어나 경지 면적을 확대하며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개시설은 한 마을 단위인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자신 스스로의 동기부여, 마을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연합이 필요하다.

(8) 가내수공업

앞서 언급한 CHE마을의 사례처럼 마을과 프놈펜 봉제 공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제언한다. 주민들에게 있어 가내수공업은 보다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공급으로 보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물질에 대한 공급보다도 노동의 대가를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소액자본대출

소액자본대출은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으로, 무담보로 소액의 자본을 대출하고 자신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빈곤 가정을 위주로 실시하며 특히, 여성 가장들이 특별 대상으로 지정하여 실행한다. 대출한 돈으로 직접 가축을 기르거나 간단한 가게를 꾸린다거나 상황에 맞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소액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케 한다.

2) 사회적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사회로부터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였던 기회들을 실제적인 주민들의 삶 가운데 공급하며, 지역사회의 하나됨과 가정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조적인 필요에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것이며 한 사람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인간계발에 대한 의미로 품병 주민들이 공급받기 어려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이다. 개인적 필요는 전인적인 인간으로의 회복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를 다루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을 경험하도록 한다.

(1) 구조적 필요

① 유치원 교육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은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적 세계관과 힌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먼저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한다. 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 크리스천 인재를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육의 과정 중 하나이다. 앞서 사례연구부분에서 언급한 NIBC의 유치원 사역의 비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중-고등학교 교육

품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 받기 힘든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가 멀어서 또는 학비 때문에 학업

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나간다. 이 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은 차세대 리더로써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훈련되는 자들로 성장한다.

③ 여학생을 위한 야학 운영

가정의 일을 돕느라 또는 공장 등지에서 노동을 시작함으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학생의 비율이 참 높는데, 이러한 여학생들을 위하여 야학을 운영하는 것을 제언한다.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인 여학생들에게 계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캄보디아를 이끌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주민 문맹교육-산술교육-직업교육

문맹교육은 성인교육의 기초로써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문맹교육/산술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계발한다. 현지인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문맹교육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의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⑤ 청년 중심 영어 교육

캄보디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외국어 교육은 현재 영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으며, 자연스런 관계형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육을 통하여 보다 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단기 팀이나 여러 선교사와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성경공부 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사람을 세운다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의 무기력하고 순응적인 삶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함을 갖게 한다.

(2) 개인적 필요

① 건전한 공동체 놀이 문화

마을 공동체 간의 신뢰와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의 행사를 계획한다. 여기서 행해질 마을의 행사들은 마을 리더 급에서 제안하고 계획하여 실행에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조사 팀이 제안하는 바로는 음식축제와 운동회가 있다. 음식축제를 통하여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며 나눔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운동회를 통하여는 한데 어우러져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아버지 학교

킬링필드로 깨어진 아버지의 상의 회복과 온전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각 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지에 대하여 교육하고, 마을의 아버지 자신의 자아가 회복되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심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언하나 이 모든 것의 치유자와 상담자 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 드리며 진행한다.

③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를 위한 프로그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 또한 귀히 여기는 생명존중의 마음도 갖게 한다.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귀한 형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의 가치가 이 안에 배어 있다.

④ 여성 가정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여성들을 섬기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모계사회인 캄보디아에서 여성의 교육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간다. 여성 가정 모임 등을 만들어 함께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배워가며 한 몸을 세워 나간다.

(3) 성장의 필요

온전한 총체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은 앞에 언급한 물리적 필요, 사회적 필요 부분과 분리하여 고려하기보다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성장의 필요는 한 영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전 후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 목적, 궁극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의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두 프로그램의 과정이자 맺어지는 결과로 건강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 될 프로그램들은 따로 떼어 놓고 진행하는 범위가 아닌 모든 큰 범위를 아우르는 틀 가운데서 실행되는 것임을 밝힌다.

V. 결론

이상, 총체적 선교로서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품병 마을에 세워질 지역사회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여건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은 한 지역의 시급한 필요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까지 같이 채워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본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모두다 통합하여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한 영혼의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센터가 세워질 품병은 지금은 캄보디아의 수 많은 작은 마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세워질 센터를 통해서 총체적인 지역사회개발이 진행될 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베들레헴처럼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인재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캄보디아를 넘어서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위해 섬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것들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이시영, 『꿈과 미래가 있는 캄보디아 101가지 이야기』, 도서 출판 샤론
스탠 롤랜드(정길용 역), 『21세기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레닷컴
조나단 루이스(문상철 역), 『세계선교원론』,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마민호-김영걸 『총체적 선교 전문가 과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